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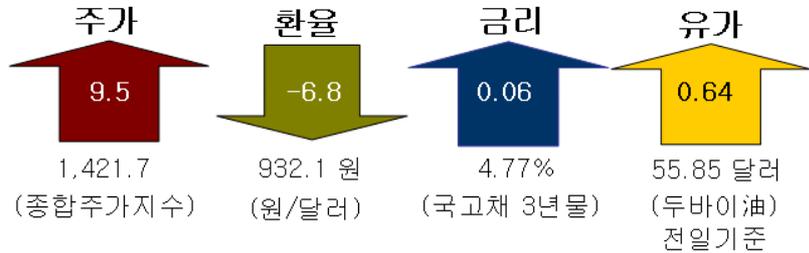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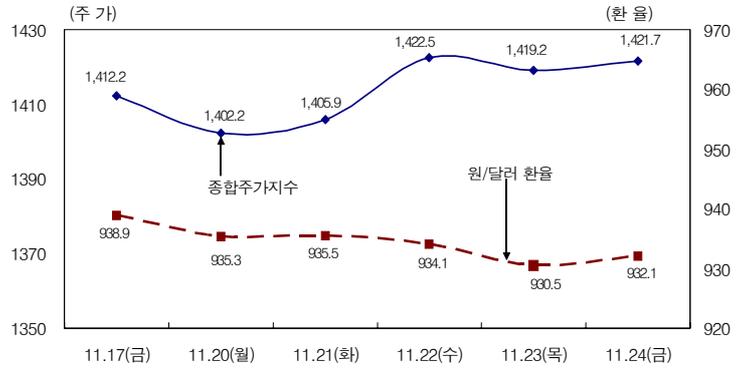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2007년 세계 9대 트렌드 예측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17~11.2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7년 세계 9대 트렌드 예측	1
주간 경제 동향	22
□ 실물 부문 : 청년 실업률 8%로 급등	22
□ 금융 부문 : 미국 경기 둔화 전망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2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실물 분석팀 : 현 석 원 연구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지식 산업팀 : 이 부 형 연구위원 (3669-4011, lbh@hri.co.kr)
- 예 상 한 연구위원 (3669-4181, syeahk@hri.co.kr)

Executive Summary

□ 2007년 세계 9대 트렌드 예측

이코노미스트誌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07년에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적인 트렌드를 분석해 본 결과, 정치경제, 거시, 산업, 금융, 지역, 사회, 문화 분야에서 9가지가 선정되었다.

첫째,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보다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그동안 부시 정부가 추구하던 미국 절대주의의 이상론적(idealism)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미국의 현실적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현실적인(realism) 정책이 이전보다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통상 정책은 상대국의 일방적 시장 개방을 강요하는 '자유 무역(free trade)'에서 미국의 산업 보호에 역점을 두는 '공정 무역(fair trade)'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 현상(Global Capitalism)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인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전략 전환, IT 등 지식 산업 위주의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근로자간·산업간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교육 양극화에 의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환경조건의 악화에 따른 기후 급변동 등에 의한 경제 변화를 분석하는 기후 변동 경제학(Global Warming Economics)이 급부상할 전망이다. 엘니노 현상과 같은 기후 변동은 음료, 식품, 건강, 환경 등 생활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위협하여 1, 2차 세계 대전 이상의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이의 배경이다.

넷째, 21세기로 접어들어 신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향후 제조업·서비스업 간 또는 산업 내異업종 간 대규모 M&A 등이 발생하는 거대 인수합병(Megamerger)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한 Web 2.0 기반의 확대에 개별 고객들이 중시되는 롱테일(Long Tail) 경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가 동영상 위주로 하여 키보드와 같은 IT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시니어들도 자유롭게 접근하는 Web 3.0이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전망이다.

여섯째, 국제 금융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중국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외환보유고 운용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이 향후 국제 금융 및 원자재 시장에 있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TVT(터키, 베트남, 태국), E7(BRICs,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포스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는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노동력을 기초로 향후에도 고성장이 전망된다.

여덟째, 아시아 교육 시장이 21세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육 투자를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교육 시장 규모가 급속히 팽창할 것이다.

아홉째, 중국 문화의 제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중국은 영상물을 중심으로 문화 산업에서 급속히 성장하며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 문화 상품 수출을 늘리고 있다.

이러한 2007년의 세계 트렌드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미국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한 통상 여건 악화에 대비하고 기후 변동에 맞는 친환경 산업 구조 구축, Web 2.0 비즈니스를 위한 상거래 제도 보완, 외환시장의 불안정에 대한 한·중·일 공조 체제 강화, 문화 자본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 육성 정책 수립 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은 新사업 구축, 新마케팅 전략 수립, 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 기후 변동 위험 대응, 신시장 개척 등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첫째, Megamerger, 아시아 교육 시장의 거대화, 문화 시장 등에 대응하여 新사업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둘째, Web 2.0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Web 기반 마케팅 전략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국제 금융 시장 위협에 대비해 환위험 등의 회피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 변동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 변동 예측 능력도 키워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BRICs 시장의 발달에 대비하여 중국 일변도의 해외 투자가 아닌 새로운 시장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007년 세계 9대 트렌드 예측 >

선정 방법 - 이코노미스트誌 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 자료를 토대로 2007년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적인 트렌드를 정치경제, 거시, 산업, 금융, 지역, 사회, 문화 분야에서 선정

트 렌 드

세계 9대 트렌드	(정치경제) ① 미국 대외정책 실용주의 강화 - 'free trade' 에서 'fair trade' 로	-외교정책: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변화 -통상정책: 자유 무역에서 공정 무역으로 변화
	(거 시) ② Global Capitalism -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 현상 심화	-차별적인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전략 전환 -IT 등 지식 산업 위주의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산 업) ③ Global Warming Economics - 기후 변동 경제학 부상	-엘니뇨 현상과 같은 기후 변동은 생활 기반 위협 -1,2차 세계 대전 이상으로 세계 경제 위기 초래 우려
	(경 영) ④ Megamerger - 異업종 간 대규모 M&A 시대 진입	-제조업, 서비스업 간 또는 산업 내 異업종 간 M&A -기술 융합으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기 술) ⑤ 진화하는 Web 2.0과 롱테일 경제 - Web 3.0의 도래 예고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게 된 Web 2.0 확대 -개별 고객들이 중시되는 Long Tail 경제 부각
	(금 융) ⑥ 국제 금융의 불균형 심화 -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 달러 영향	-외환보유고 운용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이 향후 국제 금융 및 원자재 시장에 있어 급속 확대
	(지 역) ⑦ 포스트 BRICs 부상 - TVT, E7의 대두	-TVT(터키, 베트남, 태국), E7(BRICs,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국가들은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향후 고성장이 전망
	(사 회) ⑧ 21세기 아시아의 황금 거위 - 아시아 성장에 따른 교육수요 급증	-아시아 신흥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 지대 -경제력의 급성장에 따라 교육 시장 규모 거대화
	(문 화) ⑨ 중국 문화 제국주의 부활 - 전세계로 문화 상품 수출 급증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 영상물 등 문화 상품 수출 급성장

대 응 방 안

정 부	> 통상 여건 악화에 대비 > 친환경 경제 구조 구축 > 웹 2.0 비즈니스를 위한 상거래 개선 >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 문화 육성 정책	기 업
----------------	---	----------------

- | |
|--|
| > 新 사업 구축
> 新 마케팅 전략 수립
> 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
> 기후 변동 리스크 관리
> TVT, E7 등 신시장 개척 |
|--|

□ 2007년 세계 9대 트렌드 예측

- 이코노미스트誌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의 전망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07년에 심화되거나, 새롭게 나타날 세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정치경제, 거시, 산업, 금융, 지역, 사회, 문화 분야에서 9가지를 선정함
 - 미국 대외정책의 실용주의(realism) 강화: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부시 정부가 추구하던 미국 절대주의의 이상론적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미국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이전보다 고려될 전망
 -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 심화(Global Capitalism): 차별적인 인센티브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전략 전환, IT 등 지식 산업 위주의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근로자간·산업간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교육 양극화에 의한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
 - 기후변동 경제학(Global Warming Economics) 부상: 엘니노 현상과 같은 기후 변동은 음료, 식품, 건강, 환경 등 생활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위협하여 1,2차 세계 대전 이상으로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
 - 異업종 간 대규모 M&A(Megamerger) 추진: 21세기로 접어들어 신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향후 제조업·서비스업 간 또는 산업 내 異업종 간 대규모 M&A 등이 발생하는 거대 Megamerger가 확산될 전망이다
 - 진화하는 Web 2.0과 롱테일 경제: 정보의 상호 교환이 가능한 Web 2.0 기반의 확대로 개별 고객이 중시되는 롱테일(Long Tail) 경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IT 장벽이 해소됨으로 시니어들도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Web 3.0의 도래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것임
 - 국제 금융의 불균형 심화: 지난 10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외환보유고 운용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이 향후 국제 금융 및 원자재 시장에 있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포스트 BRICs 부상: TVT(터키, 베트남, 태국), E7(BRICs,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 노동력을 기초로 향후에도 고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포스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로 주목 받고 있음
 - 21세기 아시아의 황금 거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육 투자를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교육 시장이 21세기 황금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음
 - 중국 문화 제국주의 부활: 중국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에 얽매이지 않고 영상물을 이용한 새로운 문화 상품을 개발하여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에 문화 상품을 수출하고 있음

1. 미국 대외정책의 실용주의 강화 - 'free trade'에서 'fair trade'로

○ 미국 중간 선거 패배로 부시 정부가 추구하던 미국 절대주의의 이상론적 (idealism)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미국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는 현실적인(realism) 정책이 이전보다 고려될 전망

- 2006년 11월 7일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민주당이 1994년 소위 '공화당 혁명' 이후 처음으로 상원에서 51석(민주당과 가까운 2명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 하원에서 232석을 획득함으로써 다수당이 됨

- 현실주의(realism)는 국가가 이상이나 윤리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믿음을 뜻하고¹⁾ 이에 반해 이상주의(idealism)는 이상이나 윤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외교 정책 변화) 선제공격, 일방주의, 압도적인 군사력 유지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을 골자로 2002년에 선언된 이른바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²⁾'의 외교 정책이 '이상주의(idealism)'에서 '현실주의(realism)'로 변할 것이 예상됨

-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ABC방송의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63%가 이라크 전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는 등 '부시 독트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 의사가 중간 선거를 통해 표출됨

- 그러나 민주당의 권력 강화가 미국이 그동안 추구해온 대외 팽창적인 정책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다만 외교정책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이식하려는 작업은 지양하고 국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의 선회가 기대됨

1) Keohane Robert,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Westview, NY, 1989 참조.

2) 부시대통령이 2002년 6월 1일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선제공격, 일방주의 등)을 제시.

○ (통상 정책 변화) 공화당은 상대국의 완전 개방을 강요하는 '자유 무역 (free trade)'을 실현하고자 한 반면, 민주당은 지식산업 보호에 역점을 두는 '공정 무역(fair trade)'을 대안으로 두고 있어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공정 무역'이 이전보다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미국 근로 중산층이 민주당 후보를 적극 지지하여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가능케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들의 이해를 통상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할 것임
 -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민주당 자체가 이미 상당히 보수화해서 크나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함
 - 그러나, 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100여 명의 후보들이 자유 무역, 공장 해외 이전과 대기업 특권에 대한 반대 그리고 최저 임금 인상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벌임
 -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념적인 분포를 보면 보수적인 Blue-Dog Democrats³⁾이나 New Democrats⁴⁾ 못지않게 민주당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진보적인 Progressive Democrats⁵⁾ 성향의 국회의원이 71명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음⁶⁾

○ (시사점) 민주당의 권력 강화가 미국의 팽창주의와 무역 자유화 정책의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만 미국의 국익을 이전보다 더 고려한다는 면에서 현실주의가 강화됨을 의미함

- 북핵 문제 완화 가능성: 민주당의 승리가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서는 대결보다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제조업 통상 압력 강화: 자동차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산업 부문에서 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약한 농업 부문에서는 이전보다 통상 압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3) 중도보수적인 민주당 하원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1994년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인사들이 중심으로 형성.

4) 1988년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중도 우익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당에 등장하였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

5) 진보적인 민주당 하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2004년 민주당 전당 대회를 계기로 등장.

6) William Greider, "Watershed", *The Nation*, 2006.12.4 참조.

2. Global Capitalism 확산 - 세계적인 경제 양극화 현상 심화

- Global Capitalism이란 경쟁원리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진국에서 시작된 소득과 교육 등의 양극화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을 지칭함
- 양극화 사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고용 시장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 시장에서 고소득층 전용의 병원이 등장하는 등 양극화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선진국의 양극화 사례 >

	사 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마트 성장의 원동력은 저임금과 저가의 해외 상품 수입에 있음(평균 임금이 10.11 달러로 소매업 평균 12.5 달러를 하회함) - 의료 분야에서 고소득층을 위한 '회원제 병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편의점 병원'으로 병원의 양극화 발생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계약 유연화를 위해 신 고용정책 CPE(Contrat première embauche: 26세 미만 젊은 층 고용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험 기간을 둠)를 실시함으로써 파견사원, 견습생, 계약 사원의 형태의 고용이 늘어 대졸자의 고용 불안 고조 - 이민계가 대부분인 ZUS(Zones Urbaines Sensibles: 취약도시지역)의 실업률은 20%에 달해 저소득층이 고착화되고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파견 노동으로 활용 - 글로벌화가 진행되며 공장의 임금은 해외의 저임금 수준으로 결정 - 파견법 개정 등으로 비정규직 사원 채용이 용이하게 되고 정규직 사원 해고는 더욱 제한적이 됨

자료: Nikkei Business, 2006.07.10.

-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의 경영 전략 전환,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고용 환경 악화, 교육 양극화 등에 의한 부의 대물림 등이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기업 경영 전략 전환: 기업은 계약 사원, 파트 타이머 등의 활용으로 노동 비용 절감 전략과 함께 성과주의 보수체계 도입 등으로 사원 경쟁 조장 전략을 추진하여 노동자간 소득 격차가 심화됨

-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1990년대 이후, 급속한 IT 산업의 발전과 기존 산업의 성숙화로 IT 관련 산업과 非IT 산업 간 성장의 양극화 현상 발생
 - 한국의 경우, 2004년 IT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은 25.1%인 반면, 非IT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 증가율은 3.0%로 격차가 크게 벌어짐

- **부의 세습 심화:** 지식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날 경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증대하게 되어 부가 세습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
 - 부유한 부모는 자식을 고수입이 보장되는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도록 조기부터 교육에 적극 투자

- **새로운 빈곤층 등장:** 기업 내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IT 기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새로운 빈곤층 등장
 - 학교에도 다니지 않고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지 않는 청년 무직자인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族 및 시간제 근무를 통한 수입으로 생활하는 청년(Freeter, free arbeiter) 등 새로운 빈곤층 증대

- (시사점)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정부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통한 분배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기업은 소득 격차 시대에 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新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정부는 新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력 제고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전체 후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

- **차별화된 영업 전략 수립:** 기업은 소득 계층별 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과 VIP 마케팅과 같은 소비자별 차별화된 영업 전략을 수립하여 소득 격차 시대에 대응함

3. Global Warming Economics - 기후 변동 경제학 부상

- 세계적인 CO₂ 배출 증가 등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경제 전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온실가스 조절 방법을 고안하거나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 오염 방지 대책 수립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기후 변동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은 회피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엘니뇨 발생에 의한 피해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전망)
 - 세계 평균 기온 급상승: 가스 배출량 삭감을 위한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빠르면 2035년에 대기권내의 온실효과 가스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농도의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 막대한 비용: 기후 변동(Global Warming)은 음료, 식품, 건강, 환경 등 생활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서 향후 이산화탄소배출량(CO₂e)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대의 경우보다 최소 다섯 배나 비싼 비용을 치를 것임
 - 대응책을 추진할 경우: 현재 430ppm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이산화탄소배출량(CO₂e)을 한계 수준인 550ppm 이하로 억제하는 비용은 세계 GDP의 약 1%로 추정됨
 - 대응책이 지연될 경우: 정책 입안자가 배출량 감소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수단을 수립하지 않아 550ppm을 넘게 되면 비용은 세계 GDP의 5~20%로 증가함

< 기온 상승에 따르는 피해 >

구 분		영 향
온도 변화	2도 상승	전 세계 생물 종의 15~40% 멸종
	3도 상승	2억 명이 살던 곳을 이동
	4도 상승	수억 명의 가옥이 침수

7) 세계 은행 부총재를 지낸 니콜라스 스텐의 '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2006. 11) 참조.

- **엘니뇨 발생의 피해⁸⁾**: 엘니뇨는 동절기 관련 산업 제품의 내수 및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해 관련 제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임
 - 세계 기상 기관은 엘니뇨가 2007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로 말미암아 수출 및 산업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고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⁹⁾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의 규모는 증가세에 있으며 향후 배출권 활성화**를 위해 강대국과 개발도상국의 공조 체제가 더욱 요구될 것임
 - **배출량 거래 활성화**: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6년 9월까지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이 작년보다 두 배 증가한 215억 달러로 향후 배출권 거래는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대책을 바로 취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로 장차 인류가 직면할 위험에 비해 훨씬 비용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 **(시사점) 배출권 거래, 기술 협조 등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정부는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업은 기후 변동을 친환경 상품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국제적인 협력¹⁰⁾**: 배출권 거래, 기술 협력, 산림 채벌 삭감, 기후 변동 수용 등 국제적인 협력이 선행되어야 함
 - **친환경 경제 구조 구축**: 정부는 기후 변동에 맞는 친환경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 등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 및 수요 변화를 지원함
 - **기후 변동 리스크 관리**: 기후 변동에 강한 품종 및 인프라 개발,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기후 변동 예측 능력을 향상시킴

8) 엘니뇨란 동태평양 적도 지역 넓은 범위에서 고수온이 지속되는 현상으로 기상 재해를 수반하는 등 기후 변동의 전형적인 피해라고 볼 수 있음.

9) 서울 경제 신문(2006. 10. 31.) 참조.

10) 니콜라스 스텐의 보고서 참조.

4. Megamerger 확산 - 異業종 간 대규모 M&A 추진

○ Megamerger란 과거의 동종 업종 간 M&A와는 달리 각 산업의 기술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목적으로 벌어지는 산업 간, 異業종 간 대규모 인수합병을 지칭함

- M&A 단계별 특징: 종래에는 동종 업종 간 M&A, IT 관련 기업 간 M&A 등이 활발했으나 향후 제조업·서비스업 간 또는 異業종 간 대규모 M&A 등이 발생하는 거대 인수합병(Megamerger) 시대가 도래할 것임

- 동종 업종 간 M&A 단계: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에 직면하면서 금융기관, 자동차 업계 등 동종 업종 간에 M&A가 활성화

- IT 기업 주도 M&A 단계: 2000년 전후, 급속한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자금력이 풍부해진 인터넷 기업은 인터넷 기업 간 M&A 뿐 아니라, 금융 기관이나 유통 업체 등 기존 산업 영역에 속한 기업들과의 M&A를 주도적으로 추진

- 異業종 간 M&A 단계: 21세기로 접어들어 신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제조업, 서비스업 내 異業종 간 M&A, 2차 산업인 제조업과 3차 산업인 서비스업 간의 M&A 등이 발생하는 거대 인수합병(Megamerger)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

< M&A의 단계별 사례 >

단 계	특 성	사 례
1단계	동종 업종 간 M&A	- 독일의 다임러 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 M&A - 미국의 Nations Bank와 Bank of America M&A
2단계	IT 기업 주도 M&A	- 미국의 AOL과 타임 워너사 M&A - 미국의 Yahoo와 인터넷 방송사 Broadcast M&A
3단계	異業종 또는 산업 간 M&A	-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INI 스틸 M&A - 중국의 기계회사 화립과 미국의 필립스 이동통신 부문 M&A

- **Business 2.0**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FedEXpresso, MSW, Wal*Motors, iToyota 등의 Megamerger 시대가 2006~2016년에 개막된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¹¹⁾
 - **FedEx & Starbucks**: 24시간 운영되는 상점에서는 커피, 평면 TV 뿐 아니라 전 세계 상점간 운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됨(2008년 FedEXpresso 설립 가정)
 - **Verizon Wireless & Microsoft**: Microsoft사는 미국 최대 CDMA 사업자인 Verizon Wireless를 인수하여 고품질의 IP 전송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요 경쟁사인 Google보다 우위를 점하게 됨(2008년 MSW 설립 가정)
 - **Wal-mart & General Motors**: 월마트에서 General Motors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료 정기 검사를 제공하게 됨(2010년 Wal*Motors 설립 가정)
 - **Toyota & Apple**: 2016년 새로 출시하는 신차에는 자동 주차 기능이 있으며, Mac, iPod,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내장으로 사무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됨(2013년 iToyota 설립 가정)
- (시사점) 정부는 M&A로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들은 독자적 기술 및 서비스로 생존 전략을 준비함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Megamerger를 확대함으로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임
 - **핵심 기술 유출 대책**: 정부는 M&A로 인한 핵심 기술 유출이 국가경쟁력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필요
 - **능동적인 Megamerger 확대**: 국내 기업의 선도적인 IT 기술은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능동적으로 Megamerger를 진행하여 적대적 M&A를 예방

11) Susanna Hammer, "How megamergers got cool again", *Business 2.0*, 2006.09.18.의 전망 사례를 요약, 정리.

5. 진화하는 Web 2.0과 롱테일 경제 - Web 3.0의 도래 예고

- Web 2.0이란 과거에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 받던 것과는 달리 블로그 등의 보급으로 개인의 정보 발신이 가능하게 됨으로 정보의 제공자와 수역자의 상호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대량 소비에서 개인별 소비로 소비 형태의 변화 등을 초래함
- 최근 광고, 금융 등의 분야에서 Web 2.0 기반 홈페이지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종래 개인 간 의사 소통 도구였던 블로그가 기업 경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블로그가 광고 매체 중심으로 등장: 기업 사이트 및 개인 블로그가 광고 매체의 중심으로 등장할 뿐 아니라 금융 분야에서도 고객 유치 마케팅, 새로운 대출 형태가 나타남

- 기업들은 기업 사이트 및 개인 블로그를 이용하여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법을 이용하고 있음
- 인터넷 서점 아마존의 판매 순위 10만 위 이하 판매 비중이 40%에 달하고 있으며 인터넷 음악 스토어 iTunes도 하위 80%의 매출 비중이 50%에 육박하고 있음
- 전미 총자산액 제 4위인 웰스 파고(wellsfargo) 은행은 사이트에서 생활 관련 토론장을 만들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고 Prosper marketplace라는 기업은 옥션 사이트를 통해 한 사람의 차입자가 복수의 대출자에게 용자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Web 2.0의 등장으로 대량 생산 및 소비(Mass Economy) 시장이 약화되는 한편, 다양하지만 규모가 작았던 시장 즉, 긴 꼬리(Long Tail) 시장이 매력적으로 등장하고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구조로 바뀜

- Long Tail 시장 활성화¹²⁾: Web 2.0은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정보격차를 현저히 축소시킴으로써 가격 결정이나 가치 창출 구조 변화를 가져옴

- 기업들에게는 소비자 개개인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상품,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함
- ‘오픈 마켓’ 등 소비자가 직접 생산·유통 단계에 참여하는 시장 구조 탄생

12) Long Tail 현상이란, 수요 곡선의 꼬리 부분을 이루고 있는 틈새 상품들이 머리 부분인 히트 상품과 더불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을 지칭함. 즉, 전체 상품의 20%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의 법칙이 붕괴되는 반면, 하위 80%의 상품이 상위 20%의 상품 매출에 버금가는 현상을 의미.

< Web의 진화 단계 >

단 계	Web 1.0	Web 2.0	Web 3.0
시기	인터넷의 등장	닷컴버블 붕괴 이후	향후 5~10년
사용자	일반소비자	생산소비자(prosumer)	시니어를 포함한 모든 계층
정보 생산	검색 엔진 등으로 정보를 디렉토리로 정리	사용자가 종래의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 제공	사용자가 정보를 재생산
성격	일방적 정보 전달형	사용자 참가형	완전 쌍방향형
정보전달 도구	키보드, 화면 사용한 문자콘텐츠	키보드, 화면 사용한 문자콘텐츠	동영상 중심

○ 편집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는 Web 2.0의 한계를¹³⁾ 벗어나기 위해 향후 5~10년 후에는 동영상을 이용, 보다 객관적인 사실 전달이 가능한 Web 3.0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 Web 3.0의 등장: 동영상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화하게 됨에 따라 시니어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질 것임
 - 동영상 커뮤니케이션: 동영상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편집자의 개입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활발한 Web 비즈니스 참여로 이어짐

○ (시사점) 정부는 Web 2.0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한 상거래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은 소수 소비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제품에 반영해야 할 것임

- 상거래 제도 보완: 정부는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 예방책 마련
- Web 기반 마케팅: 기업은 무엇이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Web 기반 마케팅 전략 등을 강화

13) 현재 Web2.0의 커뮤니케이션 틀은 검색 기능을 활용하거나 문자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자 할 경우, 키보드를 통해 문자 콘텐츠를 이용해야 하므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편집자 주관의 개입 가능성이 큼.

6. 국제 금융의 불균형 심화 - 중국의 외환보유고 1조 달러 시대의 영향

-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어 2007년에는 달러 및 유가 상승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¹⁴⁾
- 중국 외환보유고 급증의 주원인은 거액의 무역수지 흑자와 외자 유입, 환율 절상 방지를 위한 환율 개입 등임
 - 무역수지 흑자: 최근 중국의 무역 추이를 보면, 2005년 1,021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2006년 9월 현재 1,097억 달러를 기록, 2,0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 외자 유입: 對중국 해외 직접 투자 또한 2005년 603억 달러로 증가 추세에 있어 달러 유입이 지속되고 있음
 - 환율 개입: 무역수지 흑자와 외자 유입이 높은 상황에서는 위안화를 절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국 외환 당국의 절상 개입에 의해 외환보유고가 급증함
- 지난 2월 일본의 외환보유고를 앞지른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2006년 10월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중국 외환 관리국이 발표¹⁵⁾
 - 외환보유고 증대 가속화: 현재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20.5%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외환보유고의 연간증가율은 28.5%로 향후 비중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각국의 외환 보유고 >

국가	외환보유고	비중	연간증가율
중국	9,879억 달러	20.5%	28.5%
일본	8,813억 달러	18.9%	4.5%
러시아	2,666억 달러	5.7%	67%
타이완	2,616억 달러	5.7%	3.1%
한국	2,282억 달러	4.9%	10.4%

자료: 한국은행, IMF.

주: 1) 외환보유고 및 연간 증가율은 2006년 9월 30일 기준

2) 비중은 2006년 6월30일 기준.

14) '외환보유고 1조 달러 목전, 쌓이는 달러, 증가하는 불씨' FujiSankei Business I. (2006.10.17.) .

15) 외환보유고는 분기마다 발표되고 있어 IMF의 공식적인 통계치는 아님.

- 중국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중국내에서는 물가 상승, 금리 인상, 평가 절상 압박을 가져올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 상품 시장 변동성 확대, 세계 금융시장 주도 등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 중국내 미치는 영향: 물가 상승, 금리 인상, 평가 절상 압박 요인에 의해 투기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물가 상승 압력: 무역 흑자에 의한 중국의 경제 성장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 금리 인상 압박: 물가 상승 압력이 증대할 경우 중국 정부는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금리 차익을 노리고 투기 자금이 증대할 것임
 - 평가 절상 기대: 외환보유고의 급증은 자본유입의 증가를 나타내므로 향후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기대하여 소위 핫머니라고 하는 투기성 단기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음
 - 해외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외환보유고 운용의 변화에 따라 국제 상품 시장 변동성 확대, 세계 금융 시장 주도권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국제 상품 시장 변동성 확대: 중국이 6개월 사용할 전략적 비축유를 구매할 경우, 글로벌 원유 수요가 3배로 급증하고 또한 외환보유고의 5%만으로 금을 구입해도 전 세계 1년 금 생산량 전체 구매 가능하여 금값이 상승¹⁶⁾
 - 국제 금융 시장 주도권 변화: 외환보유액의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달러자산을 매각하고 유로를 구입한다면 달러 가치가 하락해 국제 금융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시사점) 정부는 외환보유고의 운용에 있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의 공조 체제를 수립하고 기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대비, 환위험 회피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임
 - 아시아 국가와의 공조 체제: 중국의 외환보유고의 운용 방식의 변화에 의한 국제 자원 가격과 환율 변동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한·중·일의 외환보유고 공조 체제 수립이 필요
 - 환위험 회피 능력 제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증폭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환위험 회피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16) 이데일리 신문(2006. 11. 7.), '차이나 달러 시대' 참조.

7. 포스트 BRICs 부상 - TVT, E7의 급속한 발전

○ 최근 TVT(터키, 베트남, 태국), E7(BRICs,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나타내고 있어 포스트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로 주목 받고 있음

○ TVT¹⁷⁾의 경우, 뛰어난 입지 조건을 바탕으로, E7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¹⁸⁾

- TVT 성장 요인: 터키, 베트남, 태국은 중국, 인도, EU 등 거대한 소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음

· 터키: 2005년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타이는 중동, 중앙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EU 국가들은 생산기지로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베트남: 외국 기업들은 해외 생산의 포트폴리오를 중국 이외로 넓히기 위해 베트남을 차이나 +1으로서 활용하여 베트남은 2005년 8.4%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냄

· 타이: 중국과의 거리가 가까울 뿐 아니라, 인도와의 접근성이 뛰어난 등 지리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어 2005년 4.5%의 성장률을 나타냄

- E7 성장 요인: 선진국이 고령화가 진행되며 노동력이 감소하는 반면, 신흥국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이 증가 추세임

· 젊은 노동력: 유럽의 OECD 가맹국들의 대부분이 감소하는 인구 구조와는 달리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은 풍부한 노동력 증가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5년 5.6%의 성장률을, 멕시코는 3.0%의 성장률을 기록함

○ TVT 국가들은 2008년 5% 전후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E7 국가들은 G7 국가들을¹⁹⁾ 제치고 2050년에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TVT 성장률 증가세 지속: 200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터키는 5.0%, 베트남은 7.6%, 태국은 4.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²⁰⁾

17) TVT는 타이, 베트남, 터키의 신흥 3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大前研一가 BRICs에 이어 주목해야 할 신흥국으로 제시함.

18) 일본 주간 동양경제(2005.12.31. ~ 2006.1.7.) 참조.

19)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의 7개국임.

- 2050년 E7 국가 경제 대국 부상: E7 국가들은 G7 국가들을 제치고 2050년에는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²¹⁾
 - E7 경제 규모는 2005년 환율을 고려했을 때, G7의 1/5 수준이고 구매력을 고려했을 때 G7의 3/4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G7 경제 규모보다도 각각 25%, 75%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됨

< 2005년과 2050년의 GDP 규모 >

순위	물가 및 구매력 고려(미국=100)				각국 GDP를 달러로 환산(미국=100)			
	2005		2050		2005		2050	
	국가	GDP	국가	GDP	국가	GDP	국가	GDP
1	미국	100	중국	143	미국	100	미국	100
2	중국	76	미국	100	일본	39	중국	94
3	일본	32	인도	100	독일	23	인도	58
4	인도	30	브라질	25	중국	18	일본	23
5	독일	20	일본	23	영국	18	브라질	20
6	영국	16	인도네시아	19	프랑스	17	인도네시아	19
7	프랑스	15	멕시코	17	이탈리아	14	멕시코	17
8	이탈리아	14	독일	15	스페인	9	독일	15
9	브라질	13	영국	15	캐나다	8	영국	15
10	러시아	12	러시아	14	인도	6	프랑스	13
11	스페인	9	프랑스	13	한국	6	러시아	1
12	캐나다	9	이탈리아	10	멕시코	6	이탈리아	10
13	한국	9	터키	9	호주	5	터키	10
14	멕시코	9	캐나다	8	브라질	5	캐나다	9
15	인도네시아	7	스페인	8	러시아	5	스페인	8
16	호주	5	한국	8	터키	3	한국	8
17	터키	5	호주	6	인도네시아	2	호주	6

주: 볼드체는 E7 국가를 나타냄.

- (시사점) TVT, E7 등 신흥국 성장에 대비해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은 시장 확보를 위해 포스트 BRICs 투자를 늘려야 할 것임
 - R&D 투자 확대: 정부는 수출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신흥국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증가시켜야 함
 - TVT, E7 시장 개척: 기업은 포스트 BRICs 발달에 따른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 TVT, E7 등으로 투자국을 확대해야 함

20)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보고서 '2006~2008년의 세계 경제 전망'(2006.9) 참조.

21) PricewaterhouseCoopers 보고서 'The World in 2050'(2006.3)을 정리.

8. 21세기 아시아의 황금 거위 - 아시아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 급증

-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아시아 신흥국들은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교육 투자를 증대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교육 시장이 21세기 황금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음
- 소득 증가에 따라 선진국의 GDP 대비 교육 비중이 증가한 것처럼 아시아 경제 성장은 각국의 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임
 - 교육비 비중이 높은 국가: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은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비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특유의 교육열에 의해 비중이 높음
 - 미국: 2004년 1인당 GDP는 39,722 달러로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2004년 5.9%로 소득 증가와 더불어 1995년보다 0.9%p 증가
 - 영국: 2004년 1인당 GDP가 35,859 달러로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은 큰 변화가 없으나 실질 지출액은 약 2배 증가
 - 한국: 2004년 1인당 GDP가 1995년 11,472 달러에 비해 14,161 달러로 증가하는 동안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04년 4.6%로 크게 증가
 - 신흥국 교육비 지출 증대 가능성 고조: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가 부상하면서 소득 증가에 비례해 선진국 수준의 교육 비중을 GDP에서 지출하게 되면 거대한 교육 수요가 형성될 것임
 - 중국: 2004년 1인당 GDP가 1,480 달러에 그쳐 교육 지출 비중이 GDP의 2% 대를 차지하고 있지만 GDP의 증가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인도: 2004년 1인당 GDP가 2000년에 비해 약 1.4배 증가하였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대임을 감안할 때 성장 가능성이 큼

< 주요국 1인당 GDP 및 GDP 대비 교육費 비중 >

(단위: 달러, %)

	1995		2004	
	1인당 GDP	GDP 대비 교육비 비중	1인당 GDP	GDP 대비 교육비 비중
미국	27,439	5.2	39,722	5.9
영국	19,648	5.2	35,859	5.5
한국	11,472	3.3	14,161	4.6
중국	575	2.5	1,480	-
인도	392	3.1	634	3.3

자료: World Bank, IMF.

-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경우, 유교의 영향을 받아 교육열이 높고²²⁾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 육성을 성장의 근원으로 삼고 있어 향후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교육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 교육 시장 성장 가능성: 중국, 인도 뿐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 이후 5%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교육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까닭에 향후 교육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 아시아에 대한 투자 증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교육에 대한 열의에 비해 교육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아, 세계 교육 기관의 진출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명문대 중국 진출²³⁾: 미국 스탠퍼드대 등 100여개 서방 교육 기관이 중국에 진출한 상황으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 아시아 주요국 성장률 및 교육 비중 >

	2000		2004		2008
	성장률(%)	교육 비중(%)	성장률(%)	교육 비중(%)	성장률(%)
중국	8.4	2.5	10.1	-	9.0
인도	5.3	3.1	8.0	3.3	7.7
베트남	6.8	2.9	7.8	-	7.6
인도네시아	5.4	1.4	5.1	0.9	5.9
태국	4.8	4.1	6.2	4.2	4.3

자료: World Bank, IMF.

주: 2008년 성장률은 일본 국제금융정보센터 '2006~2008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참조.

- (시사점) 외국 교육 기관 유치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함께 선진국 교육 기관에 의한 시장 잠식을 대비, 정부 교육의 체계화, 선진화가 필요함
 -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선진화된 외국 교육 기관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 대학 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22) 파이낸셜 타임스(2006. 10. 17)는 OECD의 『Education at a Glance 2006』의 교육지표를 인용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이 성공하는 것은 교육 제도 자체가 우수해서라기보다 특유의 민족성이 저력으로 작용한다고 평가.

23)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2006. 11. 16 참조.

9. 중국 문화 제국주의 부활 - 중국의 문화 수출 급증

- UNCTAD(2004, 2005)는 '핵심문화상품(core cultural goods)'의 수출, 수입액을 각각 약 547억 달러와 637억 달러로 추정하였는데²⁴⁾ 중국은 다양한 지역으로 새로운 매체를 개발, 문화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음
- 문화 산업 분류: UNESCO(2005)²⁵⁾는 문화산업 곧 문화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핵심문화상품(core cultural goods)', '핵심문화서비스(core cultural services)', '문화관련 상품(related cultural goods)' 그리고 '문화관련 서비스(related cultural services)'로 크게 분류하고 있음²⁶⁾
- 문화 상품 수출 급등: 2002년 현재 전 세계 수출액 약 547억 달러 중에서 중국은 영국(85억 달러)과 미국(76억 달러)에 이어 3번째로 많은 52억 달러 상당의 핵심 문화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로 부상
 - 중국은 핵심 문화 상품 무역에 있어서 2002년 현재 약 4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상품 경쟁력을 과시함

<2002년 현재 주요국 핵심문화상품 수출입액 >

(단위: US\$ 백만)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대한민국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골동품류	1,052	673	143	1,394	8	50	2	1	1	6
책	1,805	1,272	1,921	2,089	107	329	409	97	71	120
신문과 정기간행물	744	300	880	303	34	127	4	52	3	22
그 밖의 인쇄물	274	200	400	673	15	70	92	15	24	40
음반	1,640	1,953	3,068	1,358	371	777	254	873	174	638
예술품	2,700	2,759	889	5,425	60	397	2,229	16	69	73
영상물	330	711	344	4,093	1,208	261	2,281	57	43	119
총계	8,548	7,871	7,648	15,338	1,805	2,014	5,274	1,113	388	1,020

자료: UNESCO.

- 24) 전 세계적으로 문화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산업 시장 가치는 1조 3천억 달러로 추정됨.
- 25) 『International Flows of Selected Cultural Goods and Services, 1994-2003』 UNESCO, 2005 를 참조.
- 26) '핵심문화상품'에는 골동품(heritage goods), 책(books), 신문과 정기간행물(newspapers and periodicals), 그 밖의 출판물(other printed materials), 음반(recorded media), 예술품(visual arts) 그리고 영상물(audiovisual media)이 속해 있음.

- **다양한 지역 시장 개척:** 중화 문화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2003년 통계는 미국이 34.7%로 중국산 핵심 문화 상품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이며 그 밖의 유럽 국가들도 25.6%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영상물이 인쇄물 압도:** 전통적인 인쇄 매체가 아닌 영상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2002년 현재 중국어와 관련된 인쇄물 전체의 수출은 약 4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에 중국어와 덜 관련된 예술품과 영상물의 수출이 약 45억 달러로 전체에서 84.6%를 차지함
 - ‘비디오 게임 관련 상품’은 영상물에서 88%의 비중을 차지하며 주력 상품으로 최근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2002년에는 23억 달러를 수출하여 12억 달러를 수출한 일본을 앞지름

<중국 핵심문화상품 주요 수출시장>

	2003년 수출액(달러)	비중(%)
미 국	2,019.9	34.7
홍 콩	1,040.5	17.9
네덜란드	843.3	14.5
일 본	385.9	6.6
영 국	376.9	6.5

자료: UNESCO.

- (시사점) 21세기는 문화 자본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중국은 문화 산업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음
 - **문화 육성 정책 수립:** 정부는 전통적인 문화 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문화 산업 진출:** 한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tangible)’ 상품 생산에 치우쳐 있어 문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문화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해야 함

□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시사점

○ 세계 트렌드는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위협 요인이자 기회 요인임

- 위협 요인: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Global Capitalism, 기후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비용 증가, Megamerger의 등장으로 기업 간 경쟁 심화, 중국 외환보유고 급등으로 인한 세계 금융 시장 불안 등 위협 요인이 존재함
- 기회 요인: Web 2.0 비즈니스의 진화로 다품종 제조 시장의 발전, 포스트 BRICs 등장으로 세계 수요 증대, 아시아 경제 성장으로 인한 교육 시장 거대화 등 기회 요인이 상존함

2. 대응 방안

○ 2007년의 세계 트렌드에 대응해 정부와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정부는 통상 여건 악화 대비, 친환경 경제 구조 구축, 상거래 제도 보완,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문화 육성 정책 등의 제도 개선 및 통상, 산업 부문에 있어 대책 수립이 요구됨

- 통상 여건 악화 대비: 자동차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노조의 영향력이 강한 산업 부문에서 시장개방 압력이 높아지는 통상 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수출국 다변화 추진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친환경 경제 구조 구축: 정부는 기후 변동에 맞는 친환경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 등 에너지 효율성의 개선 및 수요 변화를 지원함

- 상거래 제도 보완: 정부는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함
 - 국내 교육 경쟁력 강화: 선진화된 외국 교육 기관에 의해 시장이 잠식되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문화 육성 정책 수립: 정부는 전통적인 문화 산업뿐 아니라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개인과 기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기업은 **新사업 구축, 新마케팅 전략 수립, 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 기후 변동 위험 대응, 新시장 개척** 등의 전략 수립이 필요함
- **新사업 구축**: Megamerger, 아시아 교육 시장의 거대화, 문화 시장의 발달 등에 대응하여 신사업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임
 - **新마케팅 전략 수립**: 기업은 무엇이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Web 기반 마케팅 전략 등을 강화함
 - **금융 부문 리스크 관리**: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증폭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은 환위험 회피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임
 - **기후 변동 위험 대응**: 기후 변동에 강한 품종 및 인프라 개발,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기후 변동 예측 능력을 제고함
 - **TVT, E7 등 新시장 개척**: 기업은 포스트 BRICs 발달에 따른 새로운 시장의 확보를 위해 TVT, E7 등으로 투자국을 확대해야 함

현석원 연구위원 외(3669-4024, kyotohyun@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청년 실업률 8%로 급등

○ 10월 실업률은 취업자수가 2,346만 3,000명으로 전월대비 13만 3,000명이 증가하였으나, 실업자수도 전월보다 2만 3,000명 늘어난 78만 9,000명을 기록함에 따라 9월의 3.2%에서 3.3%로 상승함

청년실업률, 전월 대비 0.7%p, 전년 동월대비 0.8%p 급등한 8.0%를 기록

- 15~29세 청년 실업자 수는 36.4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78.9만 명의 46.1%를 차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은 9월의 7.3%에서 8.0%로 급등함

- 또한 경기 부진에 따르는 구직 기회 감소로 비경제활동 인구인 구직단념자는 9월의 11.2만 명보다 1만명이 증가한 12.2만 명을 기록함

향후 경기 부진 심화로 고용 상황의 추가 악화 불가피

- 2007년 국내 경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채용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4	2005		2006							
			연간	3/4	4/4	1/4	2/4	7월	8월	9월	10월	
경기	경제성장률	4.7	4.0	4.5(1.6)	5.3(1.6)	6.1(1.2)	5.3(0.8)	4.6(0.9)				
	수요	소비재판매	-0.8	3.9	4.4	6.8	5.0	5.5	-1.3	3.4	4.2	-
		설비투자추계	1.4	3.2	1.1	7.0	4.3	4.2	4.1	11.7	14.7	-
		건설수주	-3.9	9.5	15.8	-17.9	-9.7	-14.1	7.3	14.9	94.1	-
		수출	31.0	12.0	15.4	11.4	10.6	16.9	11.1	17.0	21.3	11.5
	공급	산업생산	10.2	6.3	7.1	10.3	12.0	10.9	4.3	10.6	16.3	-
		취업자수 (만명)	2,256	2,286	2,303	2,303	2,258	2,341	2,345	2,316	2,330	2,346
		실업률 (%)	3.7	3.7	3.6	3.5	3.9	3.4	3.4	3.4	3.2	3.3
수입		25.5	16.4	21.1	14.6	19.5	20.0	18.6	22.9	22.6	13.6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282	166	27	54	-11	7	-4	-6	14	-	
	무역수지 (억\$)	294	232	49	61	15	50	3	3	19	25	
물가	소비자물가	3.6	3.2	2.3	2.5	2.3	2.4	2.3	2.9	2.4	2.1	
	생활물가	4.9	4.1	3.4	3.4	3.2	3.0	2.9	3.8	3.2	2.3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이며,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미국 경기 둔화 전망 등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 (해외 금융 시장) 美, 주택 경기 부진으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

- 금리: 미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전망이 부각되면서 소폭 하락 (국채 10년물 : 4.60 → 4.56%)
- 환율: 미 소비자신뢰지수 예상치 하회 및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미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달러화는 글로벌 약세(\$/€ : 1.2829→1.2942, ¥/\$: 117.65→116.45)

○ (국내 금융 시장) 달러화 약세에 따라 원화 환율의 하락 지속

- 주가: 환율하락에 따라 실적악화가 우려되는 자동차주 등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주가지수선물 순매수로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으로 소폭 상승 (1,412.2 → 1,421.7)
- 금리: 미 장기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4.71→4.77%)
- 환율: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920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성 매수 등으로 하락 폭이 완화되었으나 전주말 대비 6.8원 하락하여 932.1원을 기록 (938.9→932.1)

○ (전망)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 한은의 기준을 상승으로 원화 환율 하락과 금리 상승 압력 증대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5			2006				
		2/4	3/4	4/4	1/4	2/4	3/4	11.17.	11.24. ¹⁾
국내	거래소 주가	1,008.2	1,221.0	1,379.4	1,359.6	1,295.2	1,371.4	1,412.2	1,421.7
	국고채3년(%)	4.02	4.60	5.08	4.93	4.92	4.57	4.71	4.77
	원/달러	1,025.4	1,041.1	1,011.6	971.6	948.9	946.2	938.9	932.1
해외	DOW	10,275	10,569	10,718	11,109	11,150	11,679	12,342	12,327
	Nikkei	11,584	13,574	16,111	17,060	15,505	16,128	16,091	15,914
	미국채10년(%)	3.91	4.32	4.39	4.85	5.14	4.63	4.60	4.56
	일본채10년(%)	1.17	1.48	1.48	1.78	1.93	1.68	1.72	1.66
	달러/유로	1.2108	1.2026	1.1849	1.2118	1.2790	1.2674	1.2829	1.2945
	엔/달러	110.92	113.51	117.75	117.78	114.42	118.18	117.75	116.30
	두바이(\$/배럴)	52.09	56.32	53.19	59.16	67.17	57.33	55.21	55.85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 기준임.